

지역 소식통

정읍 북면 작은도서관 새 단장... 내일 재개관

정읍시 북면 종합복지관 내에 2008년 개관한 작은도서관이 오래된 시설을 신축하게 새 단장하고 오는 9일부터 재개관한다.

북면 작은도서관은 정읍시 1호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사업비 1억4,600만원(국비 6,800만원, 시비 4,800만원)을 투입해 노후된 내부시설을 리모델링 확장했다.

기존의 낡은 서가를 쾌적하게 교체하고 열람석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고급 테이블과 의자를 추가 설치하는 등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구연과 클레이, 풍선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교실을 추가로 조성했다.

이번 공사로 많은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시립도서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재해위험 저수지 스마트 관측 시스템 추진

고창군이 관내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예보하고 신속하게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장기화 되는 장마와 잦은 태풍 등 이상기후로 전국적인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비(50%) 등을 지원한다.

앞서 군은 고창읍 월산제 등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큰 저수지 6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18억원을 투입해 계측장비, 무선방송시스템, 상향관제시스템 등 스마트 관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 신속한 현장 대응과 주민대피에 활용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철도산업 메카로”

입암면 하루리 일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막바지 작업 ‘분주’
전동차 생산공장 본격 가동... 연말까지 잔여부지 분양 완료

정읍시가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8월 입암면 하루리(노령역) 일원에 22만1,861㎡(산업시설 143,128㎡, 주거시설 1,757㎡, 지원시설 9,617㎡, 공공시설 67,359㎡) 규모의 철

도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주)대원시스 철도공장을 비롯한 철도 관련 기업을 빠르게 유치하면서 정읍 철도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 12월에는 철도 연결선로를 포



정읍시는 지난 2018년 8월 입암면 하루리(노령역) 일원에 22만1,861㎡(산업시설 143,128㎡, 주거시설 1,757㎡, 지원시설 9,617㎡, 공공시설 67,359㎡) 규모의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합한 모든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철도산업 농공단지 산업시설 용지는 14만3,128㎡(10개 블록)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주)대원시스(8만2,786㎡)는 지난 4월 공장 건축을 완료해 가동 중이며, 그린 모빌리티인 전동차를 본격 양산해 납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5월 입주 계약 체결을 완료해 건축설계 중인 (주)엑스티지(24,808㎡)는 내년 초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시는 전체 산업시설용지 중 75% 분양을 완료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잔여 부지를 모두 분양 완료할 계획이다.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에는 모두 2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주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141억을 투입해 시공 중인 철도연결선로 사업은 오는 10월 준공을 마칠 계획이다.

또 전라북도에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도비 27억원을 들여 4차선 진입도로를 추진 완료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이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메카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잔여 부지를 모두 분양 완료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확대

코로나19·독감 동시 유행 ‘트윈데믹 상황’ 대비

부안군(군수 권익현)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상황에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지난 8월 15일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독감 유행 시기까지 겹치면 의료체계에 치명적인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필수적이다. 군에 따르면 올해 무료접종 대상자는 ▲6개월~만 18세,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이 해당된다. 기존에 만 65세 이상부터 무료접종이었던 것을 만 62세로 조정하여 무료접종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으며, 처음으로 만 13세~18세를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하였다. 트윈데믹 상황에 대비하여 면역력이 약한 청소년 및 중·장년층 이상 연령대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기존 3가에서 4가로 변경한다. 4가백신은 A형독감 2종, B형독감 2종 등 4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오는 9월 8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자는 부안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관내 25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된다. 연령대별 접종시기 및 접종기관이 다르므로 접종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중앙로 상가발전협, 경관협정사업 협약

정읍시가 원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녹지축 만들기’에 나섰다. 관련해 7일 시와 중앙로 상가발전협의회(회장 유승훈)는 정읍시청에서 ‘중앙로 상가 경관협정사업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의 일환으로, 성립프라자에서 하·버트 상가 전면부에 대해 플랜트박스(식물화분)를 설치해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에 따라 상가 전면부에 플랜트박스(식물화분) 70여

개를 설치하고, 중앙로 상가발전협의회와 상인들은 플랜트박스 유지와 관리, 운영에 스스로 참여 하게 된다.

시는 거리별·점포별 특색에 맞는 플랜터를 선택, 향기소문을 식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후 유지관리 체계 정비를 위해 중앙로 상인을 대상으로 경관협정 학교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올해 주거급여를 받는 77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 저소득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주거급여 받는 77가구 대상

고창군이 올해 주거급여를 받는 77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집수리 사업은 고창군과 위·수탁 사업으로 도비 27억원을 들여 4차선 진입도로를 추진 완료했다.

사업 대상은 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라 주거급여대상자 중 자가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사람에게, 주택 구조 노후도(구조안전·설비상태·마감상태)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 지원한다.

지원금액과 지원 주기는 경보수 457만원(3년), 중보수 849만원(5년), 대보수는 1241만원(7년)으로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 수급자가 요청하는 모든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수범위에 따라 올해 ▲대보수(지붕·욕실·주방 개량 등) 14가구 ▲중보수(창호·단열·난방공사 등) 13가구 ▲경보수(도배·장판 등) 50가구를 선정했다. 군은 8월말까지 올해 목표 가구 중 45세대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3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고창군과 LH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했고, 모두 긴급보수 가구로 선정해 이달 중 주택 개보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4월 공사 진행을 위한 사전조사가 다소 지연됐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인락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어반피크닉·더착한농산물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최종 선정

정읍시가 전라북도 주관 2020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정읍시 소재 (주)어반피크닉과 (유)더착한농산물이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유)더착한농산물 대표 최영식씨는 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지난 2018년 9월부터 농산물 하역 서비스를 맡아왔다.

올해 3월 농소동에 유기농 농산물 판매점으로 (유)더착한농산물을 설립해 경제통상진흥원 컨설팅을 받아 예비사회적기업에 신청했다.

(주)어반피크닉(대표 방경은)은 2019년 5월 회사를 설립해 교육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 하며 이번 예비사회적기업에 신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정읍소재 총 6개 기업

이 신청했다.

전북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심의위원회의 현장실사와 대면 심사를 거쳐 (유)더착한농산물, 어반피크닉(주) 2개 기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사회적기업들이 인건비 등 인프라 지원과 재정지원 공모사업 등을 통해 자립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